

웰로쉽교회

우리 하나되어

2008년 3월호 제 16권 제3호

Amazing Grace-한마음 나바호 선교수련회
나의 유일하고 진실한 친구-세레
Find HIS Vision-비전스쿨
우간다에서 온 선교편지

필리핀 단기선교-산로께 아이들





2008년 1월

이요셉, 이에임, 진, 상
joseph_amy@psmail.net

철로 그 뻥뻥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이사야 10:34-11:1)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당시 절대 제국이었던 앗수르와 레바논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예언하며(사 10) 그 뒤로 바로 구세주 예수에 대한 예언(사 11)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너무나 강력하게 문화, 사회, 정치, 종교를 하나로 묶는 종교의 제국을 쌓고 있는 이슬람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하실 때 구원에 들 수 없고 뻥뻥한 산림이 베어지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그 종교는 무너질 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어 예수의 오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 땅 특히 D-종족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 그들 중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에 동참 할 수 있는 영혼이 많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들 아드하(Idul Adha)는 이슬람의 매우 큰 종교행사 중의 하나로서 지난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슬람은 4가지 경전을 알라(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모세오경, 시편, 사복음서, 알 꾸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그의 첫아들 이스마엘(사라의 몸

종 하갈의 아들)을 통한 후손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양을 잡는(창 22)것에 대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회당에서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과 양 고기를 나누는 아주 특별한 이슬람 절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장의 직원이면서 마을 회당의 지도자인 A의 마을 회당을 찾아가 양 잡는 의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의식에 참여 하기에 회당이 넘쳐 주변 길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솔랏(기도의식)과 함께 이슬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슬람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큰 원을 만들더니(남자들만) 돌아가며 악수를 함께 하며 살람(평화)을 기원하더군요. 이어 리더급들이 모여 양 잡는 것에 대한 의미(아브라함 이야기와 가난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것 등)를 나누고 기도 후 준비된 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을 붙잡고 칼을 들어 목을 따고 새빨간 피를 흘리면서도 양은 반항이나 괴로움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묵묵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시던 광경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양 희생의 의미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① 예배를 마치고 서로 살렘(평화)을 나누는 무슬렘들.

② 양 잡는 의식 전 기도하는 회당지도자 A.

③ 자신의 희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양, 목에 걸린 판 위에 이 양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음.

④ 무슬림들에 의해 목이 잘리는 양,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순순히 죽어가는 양.

다가오는 나의 죄를 대신지고 가는 어린양의 희생이 아니라, 먼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을 기념하는 종교적 절기이면서 가난한 이들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 일뿐이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Idul Adha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되어지심을 접목하여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좋은 연결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원 플랫폼. 저희 D-팀에서 동부지역 P시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미 7-8년 전 부터 B시에 컴퓨터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완전 위임하고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영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 플랫폼을 통해 P시의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포인트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기팀이 왔을 때 사역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원 D. 제가 근무하는 공장의 실험실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대학을 마친 엘리트이며 젊고, 단단한 무슬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을 가르치며 제가 6개월 뒤 이곳을 떠났을 때 혼자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언어공부를 마쳤지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언어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연습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어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리 D의 목소리가 작고 말이 빨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언어파트너로 더 좋으며, 올 하반기 동부지역으로 이주 후 대학에서 강의(시간강사)를 위해 준비 하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함께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혜롭게 증거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무슬림과 6개월의 교제는 충분치 않고 그 이후로 제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주님께서 D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며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D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지혜롭게 D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문. 저희의 파송교회인 분당샘물교회에서 파송된 전체 선교사 가족을 초청하여 선교사 대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1월 26일 부터 2월 15일 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의 배려로 구정을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과 상 모두 요 며칠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진이 고열과 기침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였는데 많이 나아지자 상도 덩달아 아프기 시작하네요. 단순한 감기여서 빨리 회복되고 풍토병이 아니길 기도할 뿐입니다. 1주일 뒤 추운 겨울 날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리 감기에 걸려서 면역력을 키우려는 것인지....

올 7월 동부지역 S시로 이주 예정인데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두 아이에게 가장 적절하며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준비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2008년이 되세요.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가족 모두 성령충만한 삶을 살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2. 회사에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대부분 무슬림인 공장근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원 D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려 그의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도록.
4. D-족 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영향력을 미쳐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5. 진과 상이 건강하며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S시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를 잘 찾아 결정할 수 있도록.
6. 한국 방문 기간 중 안전과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족 및 후원자들과의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는 것과 믿는 것

Julie Jung

필리핀 단기선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멋진 경험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난 두 주간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서 하나님과 그분의 좋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선교는 저의 첫 단기선교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각각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무릎이 뻥 상태에서도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팀 멤버들에게 제가 부담스런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더 다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저의 걱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 특히 김송봉 선교사님과 영선(Ruth) 사모님을 비롯하여 현지 빠스또르(남자 목사)와 빠스또라(여자 목사)의 친절함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들 역시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그들은 너무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 분이 그 곳에서 얼마나 상냥하게 임재하고 계신지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단기선교 팀이 더욱 더 하고자

The missions to the Philippines was one of the most blessed and awesome experiences of my life. In those two weeks, I learned so much about God and his goodness, not just from the peoples of the Philippines, but also from my team. This was my first mission's trip and I was unsure of how God would use me but I saw and experienced how He works through each person in a unique way. I was also apprehensive of how I would be able to participate physically because of my sprained knee; I was truly afraid of becoming a burden for my teammates and injuring myself further. But once we got there, my concerns weren't even important.

I was overwhelmed by the hospitality of the people there, especially all the pastors and pastoras there: Pastor Bohn and Pastora Melba of San Roque; Pastor Daniel/Ruth SaMoNim, Pastora Estella of Roxas. The children were also such a blessing and had such pure hearts. And all these people just opened my eyes to see how good God was and how His presence was so sweet there. And it was so encouraging for us as missionaries because it made us have that much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었고, 현지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저는 진흙과 배설물이 뒤범벅된 길을 두 시간 동안 걸은 일, 빨래를 하는 여인 옆에서 돼지와 강에서 목욕을 한 일 등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삶의 교훈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 기도의 열매를 실제로 보는 것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대항 축구대회인 터키볼에서 무릎을 빼고 나서, 팀원들에게 제가 방해가 되고, 부상이 더 악화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기후였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번 단기선교에서 커다란 불편함 없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보호하셨고 이것이 팀원들과 교회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도보여행을 하기 전날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밤마다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에릭 전도사님께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무릎 때문에 너무도 겁이 나서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열면 대화시간이 끝나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단기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필리핀의 사람들을 구원해주시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



more of a willing heart, to want to build relationships, share the good news and plant seeds. And I can say that I took so many memories from this trip (like walking through mud/poop for two hours and bathing in the river with pigs and women doing laundry) but most importantly I can say I took many life lessons.

One of the biggest things I took away from this, was the power of prayer. I had head knowledge of this before the trip, but to actually see its fruit, on a daily basis, was really a blessing. One thing I prayed for a lot was the weather because I sprained my knee during Turkey Bowl and I was afraid of hindering my teammates or further injuring myself. Amazingly I was able to go without a lot of discomfort during the trip; He really protected me and I think it's because I had the prayers from my team and from the Church. I just remember the night before our trek back, we had our nightly prayer meeting, and as we were praying, Pastor Erik said whatever was holding us back from freely worshiping and prayer, to lift it up to God. And I just started crying and crying because I was so scared about my knee for the trek back and after an intense talking session, I realized that I hadn't been fully trusting God. That I wasn't being faithful, in my faith to Him. And that the whole time during missions, I had just been hoping God would heal me, hoping that He would protect me, hoping God would save these people of the Philippines, hoping we were making a difference. I learned that night (with the help of my team) that hoping for

되하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팀원들의 도움으로 배웠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크리스티나와 한 방을 썼습니다. 잠이 들기를 기다리면서, 크리스티나가 “줄리, 매일 밤 이 때쯤이면 비가 내리는데, 오늘밤은 그렇지 않네. 모든 게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신나게 웃으면서 저는 저의 걱정을 팀원들에게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아침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기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이 진흙투성이고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팀원들 덕분에 아니고,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로하스(Roxas)로 걷기 시작했을 때, 해가 나왔고 돌아올 때는 더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단기선교는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밤마다 기도모임을 갖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선교를 떠날 때에만 목상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일 목상에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도전을 받았습니



something, and having the trust and faith that it would actually happen through Him, were two completely different things. I mean, it's good to hope, but to have the knowledge that He would

provide with a 100% confidence... it blew my mind.

I had been sharing a room with Christina and as we waiting to fall asleep, she said, see Julie, every night at this time, it's always raining, but it's not tonight; and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And the exact moment she stopped speaking, the rain

started to fall. And we had a good laugh about it, and I was so glad that I had been able to bring up my worries with my team because if I hadn't, I think I would have been really upset. It rained throughout the night and continued in the morning, but I wasn't afraid anymore about the weather, because I knew even if it was the muddiest, worst conditions on the trek back, God would help me through it. And I knew that it wasn't by us (the missions team), that we were doing anything in the Philippines; it was all God. And it was amazing, as we started walking our

of Roxas, the sun came out and we got back faster than when we came. Ultimately, the trip helped me find perspective on how I should be living daily. Having early morning worship everyday and prayer meetings every night was really great. And I learned that that lifestyle should be lived in the states too.

It really challenged me to be devoted in my quiet times, because it shouldn't be forced upon us only when we're going out to missions; but everyday we're living our life as a missionary no matter where we are.



신실하신 하나님 Part I

Lisa Keem

이번 필리핀 단기선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높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메릴랜드를 떠났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단기선교를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떠날 때,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꾸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마을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he entire mission's trip to the Philippines can be summed up in one simple statement: God is faithful. As a church, as Christians, we constantly sing, pray, and lift up these words. Yet, I know for myself at least, I have never quite understood how deep that faithfulness is.

We left Maryland, each of us with high hopes and expectations, as many, including myself, have never been on a mission trip before. The idea of doing door-to-door and street evangelism, singing and dancing with children, and testifying of what Jesus has done in each of us seemed surreal. I left believing I would come back completely different, that He would transform me completely, and that the villages would be ablaze for Him.

The first stop was the SICAP Center, where Pastor Daniel and Ruth Kim warmly and generously opened their facilities, food, and guidance to each of us. I could write pages about how you could see God

첫 도착지인 시캅센터에서 김승봉, 영선 (Ruth)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센터의 시설, 음식, 안내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사역에서, 학생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글로 몇 페이지든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분들의 친절함과 놀라운 음식대접(어떤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승봉, 루스 선교사님은 사마르(Samar)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곳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줄 것이 하나도 없기에,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도 굶주렸지만, 배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간 사역지는 산로케(San Roque)였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산로케에 와서 식물성 기름에서 나오는 연료인 바이오디젤(bio-diesel)을 만드는 자트로파(Jatropha)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필리핀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캅센터의 첫 번째 졸업생인 빠스포르 봉(Bong)과 빠스토티 멜바(Melba)와 함께 사역을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두 목사님은 적어도 8개의 교회를 세운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의 숙박시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텐트제조업자였던 바이오디젤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를 회사간부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곳에는 뜨거운 물과 침대,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짐을 풀 뒤, 우리는 그룹별로 나뉘어져 통역과 함께 이웃동네로 가서 가가호호 방문전도를 하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경험을 예로 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와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한 여자는 예수님을 안다면 서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룹들도 그 마을에서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때 그 집을 흔들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화려한 숙박시설에 머무는 것 외에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이곳 필리핀까지 온 것일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이 선교가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팀



at work in their ministry, in their students, in their family, and I know all of us were deeply blessed by their hospitality and amazing cooking (which is a gigantic understatement). Pastor Daniel and Ruth told us that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about ministry in Samar is that the people financially have nothing to give, therefore the pastors and leaders have no finances to live off of. Hearts are hungry, but so are bellies. Hence, the first area of ministry we were called to was in the village of San Roque.

Korean investors came to San Roque to begin planting the Jatropha seed, which creates bio-diesel. This prospect has much potential to open up many jobs, bring other investors to Philippines, and could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ministry of that area. W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some of the SICAP Center's first alumnus Pastor Bong and Pastora Melba, two Spirit filled workers who have diligently planted at least eight other churches.

When we arrived, all of us were shocked at how luxurious the accommodations were. The President of the Bio-diesel company was a tentmaker at his church in Korea and welcomed us into the residence of the executive board. We had running hot water, beds, air condition, among other things. After unpacking we were put into small groups, each group

전체가 만나서 단막극을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분에 대해 목말라하고 애타게 찾게 하셨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전도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했



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런 속임수에서 풀려나도록, 그리고 저의 간증이나 삶, 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이 곳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팀 멤버를 통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날 밤 격려와 사랑의 깊은 말씀을 주셨고 그날 밤 이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믿게 되는 기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에 그 분을 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약한 실패의 속삭임을 넘어뜨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문을 발로 차서 열어주셨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한 지체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아이들을 위해 부르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영화사역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영화가 상영되면 모든 주민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영화는 마



with a translator, and went into the neighboring village to do door-to-door evangelism. On the whole, many of us were disappointed. Based on my group's experience, everyone claimed to know Jesus and was reluctant to speak to us. One woman said she knew Him, but at the same time was unsure if she would go to heaven. Some of


the other groups felt a similar sentiment in the village.

I was disappointed and frustrated. Why didn't God shake homes or convict people as we spoke? Did we come all the way to the Philippines for a luxurious accommodation and nothing else? I felt as if we were powerless and pointless. That night, we all agreed as a team to meet and practice our skit. As we gathered, we opened in prayer—and God showed up, mightily. He met us, embraced us, and called us to be desperate, lost, and thirsting for Him. Because I was so discouraged and frustrated from the door-to-door evangelism, I felt ashamed to pray. I asked my brothers and sisters to lift a prayer for me, to release this deception and become hungry to see Him move—not because of my testimony, my life, or even my words, but simply because these people need salvation and because He is good all the time. It was then that God spoke beautifully through my teammates. The Spirit spoke profound words of encouragement and love that night, and after that evening,


we all desired him. More than just seeing the miracle of people believing, we wanted to see God because of how amazing He is. We knocked a small, faint whisper of a knock, and he kicked open the door for all of us!

The next day we had children's ministry and as one body, our minds and hearts were united in our

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음향은 최악이었고 아무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에 관한 영화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며 영화를 중단했고 아무런 준비나 도구 없이 아이들과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단막극을 했습니다. 완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단막극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영혼이 우리의 단막극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온 것이나 준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릭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고 마지막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든 여인 한 명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천히 더 많은 어른, 십대들과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팀원 중 한 명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마을의 한 남자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두의 마음을 휩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 

desire to worship God with these songs and with our service to these kids. The evening came where we were supposed to have a movie ministry. Because there is no electricity, when there is movie playing in the street, the entire village comes. We expected the movie to be about Jesus, but it ended up being about drugs. The sound quality was horrible, and no one knew what was going on or what the movie was really about. In frustration we shut it off, and without any preparation or props, we sang, danced with the kids, and performed our skit. Though we were utterly unprepared and feared the skit would not be understood, I felt His presence, and I know that that night, our skit touched lives. He allowed his people to see, feel, and understand, and that it truly is not about what we have done or prepared at all, but it is all about His grace.

Pastor Erik shared his testimony and had an altar call at the end. At first, only one older woman came forward. We prayed for her, and slowly more and more adults, teenagers, children were all coming to the Lord. I saw one of my teammates preaching to the men of the village, with boldness and fire. I saw my sisters embracing children and praying over them by their own will. God came and swept hearts away. All we could do was stand in awe. (To be continued) 



부모의 사명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 - 신율미

우리 교회에서는 4년 전부터 ‘맥체인 성경읽기 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권장 해왔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란 맥체인 목사님께서 고안하신 성경 읽기 진행표에 따라서 매일 4 ~ 5장의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맥체인 표 대로 읽으면, 1년 동안에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두 번을 통독하게 됩니다. 해마다 연초에 많은 분들이 비장한 각오와 함께 맥체인 성경읽기를 시작했지만,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을 읽어낸 분들은 시작한 사람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했을 땐, 여러 날에 해당되는 분량을 하루에 몰아서 읽은 날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맥체인 표 대로 성경을 통독했다는 뿌듯한 마음에 ‘우리하나되어’에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한 글을 썼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때, 여러 날의 분량을 한날에 몰아서 읽는 것은 맥체인 성경 읽기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는, 제 생각도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매일 맥체인 표 대로 성경 읽기를 해 왔습니다.

작년엔 연두에, 김원기 목사님께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완독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엔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은 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완독하셨습니다. 작년엔 영어회중에서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맥체인 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장려해왔던 영어회중이 작년부터는 맥체인 표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회중에 있는 한어회중 부모님들께는 자녀들과 함께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시켜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이미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아이들이 의문이 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시간을 매일 갖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주일 학교에서, 어와나 클럽(AWANA Club)에서 배우겠지 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걷습니다. 심지도 않았다면 무엇을 걷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주일 학교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어와나 클럽의 성경 암송 구절을 준비시켜주지 않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실제로 보고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니,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읽히고,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해야 하는 양치질을 게을리 하면 충

치가 생길 것이고, 매일 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을 게을리 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 고 콜레스테롤 등의 성인병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의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게을리 해서 유발되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이들과 함께 읽은 맥체인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들은 9학년과 6학년의 두 남자아이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6년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마음먹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나누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그림책으로 된 성경책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수준에 맞는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큐티(Q.T.)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의 큐티용 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자신의 짧은 성경 지식을 한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과 새벽에 일어나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큐티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큐티 내용이 묵직해집니다. 솔직히 제 자신이 하는 말씀 묵상보다 아이들의 묵상 내용이 훨씬 순수하고 깊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큐티만 하고 성경책 통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어회중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어 아이들한테 함께 읽을 것을 도전했습니다. 이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거기에서 맥체인 표로 성경책 읽는 것을 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이의 경우는 큐티 교재에서 묵상한 말씀 외에도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각 장마다 묵상을 해서 총 다섯 가지 말씀을 우려냅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맥체인으로 묵상하는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

한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큰 애는 고등학교, 작은 애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등교시간이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하고, 맥체인을 읽고, 기도하고 학교에 가기가 벅잡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철칙을 세워서, 새벽 5시 반부터 아이들의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런 신앙 교육이 자유함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저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자유를 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왔고,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 지각할 수는 있어도 말씀 묵상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고, 아이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학교 숙제를 못해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이 새벽에 큐티를 하느라 학교에 지각한 일이 없었고, 성경책을 읽느라 학교 숙제를 제 날에 못해간 일도 없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한번 제 날짜에 못한 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믿음으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했으니, 숙제 마감일을 미루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숙제 마감일이 연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열심을 어여쁘게 여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것은 우연이고 학교 숙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한테 주신 학생이라는 신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것을 학교 숙제 다음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아이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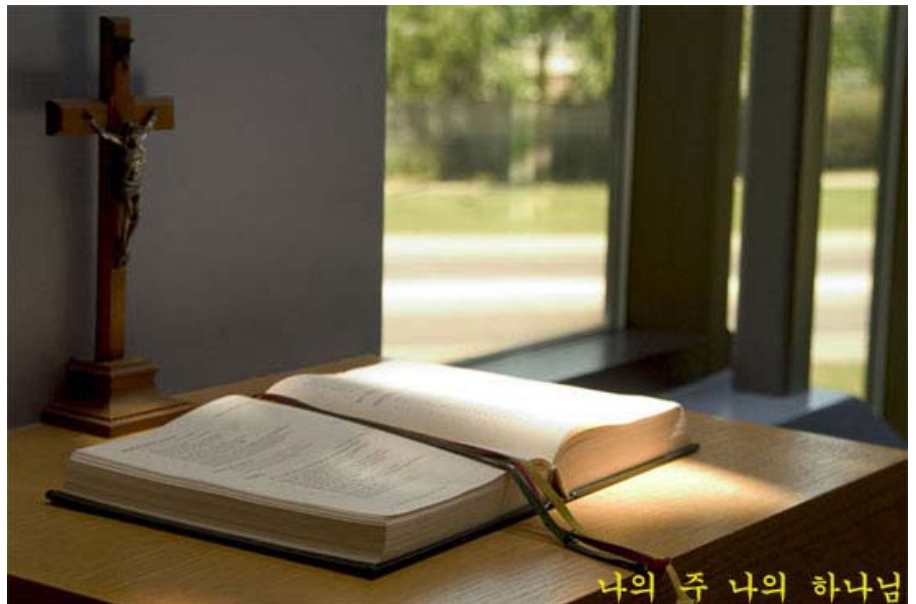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묵상에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학교 가는 시간까지 맥체인 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 학교에 가지는 못하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학교 갔다 와서 해도 된다고 일렸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는 고지식하게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학교 가기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까지 끝내고, 또 한 아이는 맥체인 표 여벌과 성경책을 학교의 자기 사물함에 넣어두고, 학교에서 있는 'D.E.A.R.(Drop Everything And Read)' 시간에 읽곤 합니다. 그 아이의 담대함에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성경책을 펴들고 읽는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한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읽은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었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예배시간이 아니라도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스쳐지나가며 맥체인 성경과 연결이 되면,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밥 먹다가도 맥체인으로 읽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체인으로 인해 즐거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맥체인 완독상으로 예쁜 성경책을 한 권씩 받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큐티를 한다고 상을 준 일이 없었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상을 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을 받을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견해서 칭찬해준 일은 있었지만, 상을 준 일은 없



었는데, 아이들이 목사님한테서 성경책을 상으로 받아오고는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왜 맥체인 읽기를 하면 상으로 성경책을 받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에 애먹었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왜 엄마는 상을 안 주느냐는 질문이 바로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상이 성경책이냐? 그러면 목사님께서 상으로 전자 게임이라도 주실 것 같으냐는 말에 아이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올해도 또 아이들과 함께 맥체인 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맥체인 표를 코팅까지 했습니다. 헬로쉽교회 교우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맥체인 표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그 생각 접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목사님께서 주시는 상은 받을 수 없겠지만, 성경 읽기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놔두고 혼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맥체인이어야만 하냐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꼭 맥체인으로 성경을 읽어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자신이 속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권면하는 것을 묵묵히 쫓아가는 순종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Find HIS Vision – 비전 스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눅24:14)’

글 - 유종우

그 동안 예배 시간에, 또 주보를 통해 접해 왔던 워싱턴 DC 4기 ‘비전 스쿨 (Vision School)’이 지난 2월 29일(금)에 강요한 선교사(우즈베키스탄)를 모시고 열렸던 선교집회를 시작으로 그 막이 오른다. 이 지면을 통해 먼저 비전 스쿨을 들었던 교우들의 나눔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봄으로 비전 스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김시홍 (VA)

(샌프란시스코 비전 스쿨 6기 졸업)

선교에 대해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해서 비전스쿨을 처음 대하는 저의 마음은 또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선교의 지식을 더 쌓고 말씀의 지식을 더 쌓아가는 ‘해가 되지 않는’ 좋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처럼 저를 위해 다

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훈련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선교에 대한 말씀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고 새로운 선교의 지식은 더해주시는 않았을지 몰라도 선교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선교를 하려던 저에게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우리들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선교 지역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달았습니다. 1800년대 말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가 몸 바친 중국의 내륙 오지, 1965년 짐 엘리엇을 위시한 5명의 전도유망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을 피살한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2000년대에도 다른 종족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 비전스쿨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에 대해 당시 시사지 ‘LIFE’에서 ‘낭비’라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며 과연 우리 지금의 삶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과 함께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문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훈련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지였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품으신 종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느끼고 보았던 시간들이었고 때로는 힘들고 지루했던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을 너무도 값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미전도 종족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종족들을 품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재확인



한국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했고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들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양화진의 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빚진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도 했습니다. 미국 학생 선교 운동을 통해 한국을 찾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지만, 그 당시 미국 학생 선교 운동 연감 뒷면에 적혀있는 19세기 말 조선을 찾아가다 땅도 못 밟아보고 순교한 이름 없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고 아끼시며 기억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끝부분을 여기 적어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호레스 G.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1859년 7월 19일 런던에서 출생하여 1872년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뉴욕대학(1881)과 뉴 브른슨 신학교를 졸업(1884)하고 미북장로회 선교사로 19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했다. 1886년 고아원을 설립하여 경신학교로 발전시키고, 1887년 장로교 최초의 새문안교회를 설립했다. 1897년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고, 1889년 한영사전을 편찬했다. 1890년 성서공회를 설립하고 성서번역위원으로 활약했다. 1915년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던 그는 "사람이 일을 아니하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 언더우드 가문 4대가 안장된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일가의 정신과 공적은 우리 겨레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비문이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 4대 가문 묘역



비전 스쿨을 통해 저 개인의 ‘제 2의 조선’을 찾아 나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성도 여러분 각자의 ‘제 2의 조선’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선교

최문석 (MD)

(워싱턴 DC 비전 스쿨 3기 졸업)

작년(2007)에 비전 스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은 생소했지만 어렵듯이 어떤 성격의 모임일지 짐작이 되었는데 별로 특별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요즘 하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참 귀하고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식상하게 여겼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뜻하지 않게(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셨겠지만) 2007년 8월에 산호세에서 열린 선교캠프를 다녀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겐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선교캠프 이후 약간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2007년 9월 버지니아 필그림교회에서 열린 비전 스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선교캠프에서 보였던 임이스마엘 선교사님의 첫 공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약간 마른 몸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지 굉장한 도전을 받았 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분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기에 저런 열정이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바로 비전 스쿨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흥미진진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수가 더해 가면 더해갈수록 선교에 대한 저의 막연한 생각들이 바로 잡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수업 때마다 강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오셔서 각 지역의 선교 상황과 특히 아직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더라도 어느 정도 전해졌는지, 그리고 요즘 테러니 뭐니 해서 더욱 많이 알려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각 지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헌신을 다하여 하시는 강의를 들으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냈었습니다.

흔히 들어보기 힘든 한국 선교역사 강의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땅에 뿌려진 일반인들이 보기엔 정말 값없이 뿌려진 듯한 선교사님들의 피값....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한 명의 선교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 하나님 나라에선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 들으면서는 당장이라도 선교현장에 나가 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니 내겐 현실적으로 아직도 선교를 위해선 우선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던져주시던 한 선교사님의 말 아직 잊지 못합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가 꼭 어느 지역에 나가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까운 크리스천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거의 매일 패배하며 정말로 나약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저를 안고 계신 주님이 움직이시면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주님께 다시금 고백합니다.

궁핍의 마음


김성국 (VA)

(워싱턴 DC 비전 스쿨 1기 졸업)

헬로쉽교회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열린 비전 스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과 똑같이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아랍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쿠르드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며, 인도와 북아프리카에 어두움에 눌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공훈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직접 가보고 싶어지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비전 스쿨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저의 비전입니다. 또한

비전 스쿨 후에 바뀐 것이 있다면 예전에 있었던 이슬람권 사람들의 편견 대신 오히려 그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비전 스쿨 Q & A

Q: 비전 스쿨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A: 선교에 대해서 배우거나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삶 속에 주신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원하는 분들 모두입니다. 비전 스쿨은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비전은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Q: 비전 스쿨 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강사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A: 21세기 세계 선교 현황, 미전도 종족과 전문인 선교, 선교 명령/소명/헌신, 교회론, 한국교회사, 선교와 문화 및 지역 연구, 중보 기도과 영적 전쟁, 미션 스피릿, 한국학, 사역과 은사, 이슬람 역사와 이해, Back to Jerusalem 선교운동, 창(10/40 Window) 강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들은 현지/사역 본부 선교사, 미주 사역자, 각 지부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4월 1일 (화) 저녁 강의는 김원기 목사님께서 교회론 강의를 해주십니다.

Q: 비전 스쿨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에 헬로쉽교회 MD 캠퍼스에서 열리는 워싱턴 DC 비전 스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0일 (월) 저녁 7:30입학식/오리엔테이션

3월 24일 - 5월 13일 (월, 화 주 2회) 저녁 7:30강의 (8주간)

5월 19일 (월) 저녁 7:30졸업식

특히, 이번에는 워싱턴 DC 지역에선 처음으로 수강생 자녀들을 (3세 이상) 위한 어린이 비전 스쿨이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Q: 비전 스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 시간을 시작으로 종족 소개, 선교사님들의 강의, 조별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Q: 비전 스쿨 등록비는 얼마이고, 어디에 쓰이며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일반 \$190, 부부 \$350, 청년부 \$150이며, 등록비의 대부분은 강사 선교사님들의 항공료와 비전 스쿨 교재 등 운영비로 지불됩니다. 비전 스쿨에 대한 문의 사항은 헬로쉽교회 ‘세계선교센터’ 정대영 장로(202-374-8719) 또는 VA 캠퍼스 김은경 집사(703-969-0377)에게 해주시거나 wadc@intercp.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Q: ‘Back to Jerusalem (BTJ)’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는데 어떤 뜻인지 소개해주세요.

A: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로부터 천국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지구상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3000여 종족이 남아있습니다. ‘Back to Jerusalem’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세계 교회의 마지막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1920년대 중국 교회는 주의 복음을 실크로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전파하여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Back to Jerusalem’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바호 선교수련회

글 - 유상호



2007년 한마음 나바호 선교수련회를 다녀와서

한마음 청년부에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총 66명의 지체들이 아리조나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과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 다녀왔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여름에 약 20명의 지체들이 단기선교로 호피인디언 보호구역을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한마음의 대부분의 지체들이 수련회를 선교지에서 가져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만큼 5개월간의 시간을 사전 조사하며, 움직이며, 또 기도해야만 했던 수련회였습니다. 또,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크리스마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마음 지체들과 나바호 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 전

2007년 한마음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겨울수련회를 호피인디언 지역에서 가지는 것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에 참가한 65명의 지체 중 50명의 찬성을 얻어, 9월부터 최종우 형제를 주축으로 하여 선교팀이 구성되고, 실제로 비행기티켓을 구입하기 위한 접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수련회까지는 4개월가량이 남은 상황이었어서, 많은 지체들이 “예”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에서 한명 한명 전화와 만남을 통해 1차 접수인 9월 16일까지 55명의 접수가 완료됐고, 2차접수일인 10월 28일까지는 62명, 최종 접수일까지는 71명(비행기 티켓팅 후에 5명의 지체가 불참하게 됨)의 지체가 접수를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접수가 되는 대로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5개의 수련회팀과 7개의 사역팀(미용, VBS, 의료, 카페, 홍보, 요리, 중보기도)으로 구성되는 운영계획을 잡고, 선교사님과의 연락을 통해 현지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도회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수련회 떠나기 한 달 전부터는 토요예배와 주일아침 시간을 드려, 선교 훈련을 받고 또 먼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세를 다져왔습니다.

12/20 (목 - 1팀 출발)

12월 20일(목), 먼저 대학 그룹으로 대부분이 구성된 1차팀 31명이 이민 가방 23개의 '전체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호피지역의 사정으로 떠나기 1달 전에 선교지가 호피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바뀌었기에, 김영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가 선교지인 'Gray Mountain Bible Church' (GMBC-나바호 보호구역 카메룬 시에 위치)는 처음이었습니다. GMBC에 도착하여 숙소와 사역 장소로 이용될 예배당 건물과 체육관 건물을 청소하고, 나바호 분들이 거주하시는 카메룬(Cameron)시와 투바(Tuba)시를 돌아다니며 각 사역들을 홍보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을 집회 때 오실 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12/21 (금 - 2팀 출발)

1팀이 선교지에서 준비하는 동안, 황금연휴 전 금요일의 교통 혼잡을 뚫고 나머지 35명의 지체들이 김일두 집사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에 피닉스(Phoenix) 공항에 도착하여 4시간가량의 새벽운전을 통해 GMBC에 도착합니다. (오는 도중 Van 3대 중 1대가 고장으로 서는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35명 모든 지체가 안전하게 GMBC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2/22 (토 - 사역 첫째날)

토요일 오전 9시, 드디어 선교수련회에 참석한 66명의 지체 모두가 교회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한 구석에 박스를 깔아 임시로 마련한 남자숙소가 남은 2박 3일의 예배당이 되어주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주제로 김영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를 통한 하나님의 'Amazing Grace'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단지 따로따로 움직였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사역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용사역: 3일의 사역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나바호 분들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파마, 염색, 헤어컷, 네일 등을 통해 나바호 분들과 실제적인 접촉하여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용사역에 오셨던 나바호 분들은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집회에 꼭 참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VBS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3일 동안 동네구석에 있는 아이들 한명 한명을 데려오고 데려다주며, 율동과 연극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마음을 소유하며,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3일이었습니다.

-의료사역: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미국 어린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해드렸을 뿐 아니라, 한분 한분에 맞는 의료상담과 음식물섭취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워싱턴이나 나바호지역이나 공통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사역: 사역지를 찾아오시는 나바호 분들에게 안식처와 음식을 제공해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와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을 통해 기본적인 안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상영되어지는 영화, 특히 '영어완전정복'이라는 한





국영화는 2중 언어를 쓰고 있는 나바호 분들에게 큰 공감을 가져왔기에 함께 웃고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홍보사역: 12월의 강추위와 동네에 수없이 풀려져있는 개들의 위협을 뚫고 나바호보호구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3일 동안의 사역과 크리스마스 집회를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홍보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이 GMBC를 찾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바호 가정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리사역: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숨어서 선교수련회의 모든 음식을 제공하여 주었던 사역이었습니다. 70명의 매 끼니를 약 5명의 지체가 모두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150명이 넘는 나바호 분들이 오신 크리스마스 집회의 호텔식 full course 저녁을 이들이 다 책임지어 주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Amazing Grace'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수련회였었습니다.



- 중보기도사역: 마지막으로 기도의 용사들로 구성

되었던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역이 행하여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난방도 안 되는 골방에서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12/23 (일 - 사역 둘째날)

주일 새벽 4시, 남자숙소 옆에 있는 부엌에서는 딱딱딱 요리팀이 샌드위치 만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5시, 모든 지체들이 호피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떠나기 위해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호피지역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GMBC의 주일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습니다. 호피지역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선교지였기에 순교하신 장두훈 선교사님의 묘지를 비롯하여, 이상혁 선교사님이 세우신 Korean House가 있는 second mesa, 지난 여름선교 때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신 권사님 댁,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 보이는 광야에 차례로 들리며 이 땅에 언젠가 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24 (월 - 사역 셋째날)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은 모든 사역의 마지막 날일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한겨울에 체육관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자고, 다리가 통통 붓도록 오후 내내 서서 머리를 자르고, 미친 개에 쫓겨 다니고 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5시에 시작될 집회를 위하여 GMBC에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가 깔리고, 크리스

마스 장식 시작되니 어느새 체육관은 호텔의 그랜드 홀처럼 멋있게 꾸며집니다. 또, 체육관 밖에서 VBS 팀들은 아이들에게 울동을 가르치고, 음식팀은 부엌에서 함박스테이크를 부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드디어 오후 5시,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이 체육관 주위에 둘러섭니다. 그리고 나바호 한분 한분이 입장할 때마다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들어오시는 나바호 할머니 한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둘러선 우리와 들어오시는 나바호 분들 사이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오고갑니다. 준비되었던 150석이 나바호 분들로 꽉 채워집니다.

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VBS울동을 따라 하기 위하여 무대 앞 바닥에 앉습니다. 드디어, 최상운 형제의 찬양 인도로 집회가 시작됩니다. 둘러서있는 우리의 입에서, 앉아 있는 나바호 분들의 입에서 “How great is our God”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VBS팀의 연극과 울동, 드라마팀의 6개의 예수님 드라마, GMBC의 나바호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만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욱 더 값지게 하여주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집회가 끝나고, 떠나기 아쉬워하는 나바호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축복!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Amazing Grace’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주신 5박 6일간의 한마음 선교 수련회였습니다. 보내주신 교회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한분 한분께 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Amazing Grace

신근혁



‘Amazing Grace’, 이번 선교수련회의 주제이자, 주제 찬양의 제목이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단어, 찬양이었지만 이번에 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단어요, 찬양이었다. 이번 선교수련회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난해 여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였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별반 그것을 향한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원하던 사역 팀에 배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전혀적인 모태신앙,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있던 나는 그곳에 있는 영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사역, 즉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일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말씀은 뒷전이였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준비에 들어가기 전 내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서 내가 죄인임을 강제로 알리셨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일로 인해 조금이나마 내 죄를 인해 죽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일이 도움이 되었는지 내 맘속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내려놓기는 더욱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나는 선교수련회를 시작했고, 다시 나는 선교가 아닌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다르다고 나는 느꼈다. 이전에는 억지로 해야 했던 일들을 즐기는 내 모습을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득했던 불만과 불평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돌아보았을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내 안에 있던 불평, 불만들이 나의 교만함과 죄 때문이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교에 나는 VBS팀의 일원으로 섬겼다. 설 새 없이 밀려드는 아이들, 아이들과 있는 시간

동안 내가 근본 악한 자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쁨으로 한다 여기는 와중에도 설 새 없이 밀려오는 내안의 짜증과 불만, 내가 부인한다 해도 내가 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중에도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선포됨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내 모습보다는 육체가 힘들고 피곤함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하는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다.

나의 죄인됨으로 인해 초라해 보였지만, 오히려 내게 힘이 된 것이 있었다. 내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마음’이라는 공동체의 지체들이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선교지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여겼을 때, 내게 힘을 준 것은 함께 일하는 성경학교(VBS) 팀원들이었다. 그 조차도 도움되지 않았을 때, 내게 힘주신 것,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주신 하나님이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될 수 있었고, 힘든 중에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정말 값지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되돌아본다. 자유분방한 아이들 때문에 고생한 것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던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기도했노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팬스레 내가 뿌듯해졌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던 복음, 그 생명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혼자 느꼈다. 물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드라마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가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감히 큰 꿈을 꾸어 본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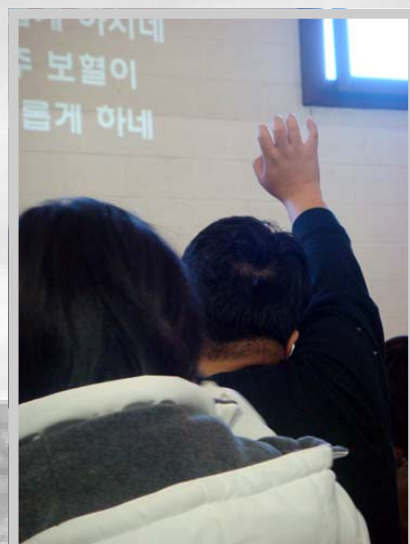
그곳에 넓게 펼쳐져 있는 광활한 땅,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밤하늘, 그 자리에서 있는 것



만으로도 하나님의 숨씨를 볼 수 있어 좋았지만 그 땅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디언들에게 행한 잘못된 모든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달라고 말이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땅을 기억하신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말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날을 꿈꾸어 본다.

그 하나님의 ‘Amazing Grace’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어 찬양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이제 더 이상 선교는 내게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 하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말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한 지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영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방해들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우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방해할수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내 안에 생겼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렇게 능력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성령님

사랑은 모든 문학, 음악, 미술, 철학의 영원한 주제가 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아름답게 묘사된 사랑이 외설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런가? 사랑이 나쁘게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죄로 어두워져 버렸다. 죄는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현저하게 왜곡시킨다. 죄는 사랑마저 왜곡시켜 음담패설과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글 - 장승민 목사



더러움과 사랑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세상에는 깨끗한 사랑과 더러운 사랑이 존재한다. 깨끗한 사랑이란 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서로 깨끗하게 되어가는 사랑이다. 반면 더러운 사랑이란 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서로 더러워지게 되는 사랑이다. 후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God is love, 요일4:16). 이것은 고대 헬라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신적 진술이다. 이슬람교는 이렇게 말한다. 알라는 사랑할 수 있다(Allah can love). 이 말인즉 '알라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Allah may not love)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은 알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선행을 행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들을 깨우려 했듯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가득하다.

사랑은 모든 문학, 음악, 미술, 철학의 영원한 주제가 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아름답게 묘사된 사랑이 외설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런가? 사랑이 나쁘게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죄로 어두워져 버렸다. 죄는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현저하게 왜곡시킨다. 죄는 사랑마저 왜곡시켜 음담패설과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성령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성도들을 권면했다: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롬15장30절).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왜곡된 사랑의 변수들을 바로 잡아 주실까? 은행마다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감별사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지 아는가? 그들은 위조지폐에 몰두하지 않는다. 오직 오리지널 지폐만을 보고 또 본다. 오리지널을 알면 알수록 위조지폐를 식별해내는 일은 쉬워진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제 아무리 사랑에 관한 위조물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사랑의 오리지널을 아는 사람은 가짜를 쉽게 구별해낸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관건은 사랑의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다.

성령님께서 사랑의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유용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천 육백 년에 걸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오십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다.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 여쭙었다. “성령님, 레위기서는 너무 재미없어요. 제사 이야기가 전부잖아요. 이런 본문도 끝까지 읽어야 하나요? 신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은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적어 놓으신 겁니까? 허도 잘 안 굴러가요.”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편지 읽을 때 지겨운 적 있었니? 성경은 단순히 리포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란다.” 나는 무릎을 쳤다. 그 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마치 연애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지루하기만 했던 레위기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성경 안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학장르들 - 시, 소설, 수필, 논설, 희곡, 서신 -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주제는 하나다.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신학자들 중 성경의 가치를 격하시키려는 이상한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다. 기독교를 반박하는 영화나 안티 사이트들은 주로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모세오경은 몇 가지 문서가 편집된 책이라는 등... 사복음서는 서로 앞뒤가 안맞다는 등... 나는 이런 주장들을 접할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깨닫겠다는 것일까?

아내로부터 연애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형식을 골랐을까? 섬표, 느낌표, 마침표 하나 하나 목상하며 주석해가며 읽는다(거의 큐티 수준이다). 연애편지를 쓰는 사람이 가능한 모든 장르와 모든 형식과 모든 표현을 동원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연인에게 전달하고 말겠다는 의지때문이다. 연애편지를 쓸 때 매번 똑같은 형식과 표현을 사용할 멋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그런 편지를 읽고 연애감정을 느낄 바보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형식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쓴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경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 이렇게 여쭙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성령님은 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끄셨다. 짧은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긴 감동을 주는 본문이었다. 나는 한자 한자 읽어가며 또 여쭙었다. “성령님, 세상에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이게 참된 사랑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네요?” 그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랑이야.



그래, 너는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사랑하기에 아직도 미숙하기만 한 필자는 이렇게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며 참된 사랑의 의미를 날마다 배워간다. 그분과 나누는 사귀를 통해 내가 전에 생각했던 왜곡된 사랑과 사랑의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큰 골을 매꿔간다. 나도 할 수 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골이 조금씩 조금씩 매꿔질수록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다. 나는 문학도라 책을 참 좋아한다. 대학시절 나는 통속적인 책들도 인생공부라 여기며 가리지 않고 보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책들은 나의 생각을 어지럽혔고, 나의 정욕을 부추겼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날밤을 새워 적이 여럿 된다. 나는 읽다가 울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다가 새벽예배에 가곤 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통속적인 책들로 인하여 오염되었던 나의 본성이 순화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불러 넣어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감동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셨다.


나는 옛날 책을 읽을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무수한 대중가요를 암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찬양이란 음악이었다. 그 음악은 참 이상했다. 세속적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었는데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겼다. 사랑의 찬양을 들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찬양을 들으면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 그 때 찬양에 관심을 갖도록 나를 이끄셨던 분 역시 성령님이셨다.

나는 대학시절 하숙을 했는데 입소 첫날 술을 배웠다.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령님은 나에게 술취함은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육체의 일이라고 가르쳐주셨다(갈5:19-21). 나는 술을 끊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끗하게 반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숙생활 둘째 날 배운 것은 도박이었다. 술은 끊었지만, 도박은 쉽지 않았다. 당시 나는 하루라도 패를 잡지 않으면 손이 떨리는

지경까지 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한판하자는 소리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 나서는 나에게 하숙집 친구는 한판을 제의했다. 평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좋아했을 텐데, 그 날은 신기하게 전혀 그런 생각이 일지 않았다. 대신에 도박이 하나도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했나 아까운 생각이 겹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놀랍게도 나는 그 날부터 완전히 도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 날 나에게서 그 마약같은 도박의 맛을 거둬 가버리신 분 역시 성령님이셨다.

성령님의 사랑은 이처럼 막연하지 않다. 그것은 실체적이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에 빠지면 빛이 난다. 화장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것이 달라진다. 사람을 사랑해도 이와 같다면, 깨끗하다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새로워지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신다. 사단은 오늘날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영혼들을 타치는대로 노략질하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악탈자에게 단 한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영혼을 던져주는 비극이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한 분 밖에 없다. 당신은 깨끗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불결한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는가? 

3월의 추천도서



추천도서 I

하늘의 언어 (하늘문을 여는 열쇠)

저자: 김우현



책 소개

〈팔복 시리즈〉와 〈부흥의 여정〉의 다큐 영상 작가 김우현 감독이, 이번에는 근현대의 한국교회에서 얼마간 잊혀지고 심지어 소외되기까지 한 성령의 은사, 즉 모든 신자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방언'에 대해 강조하고 조명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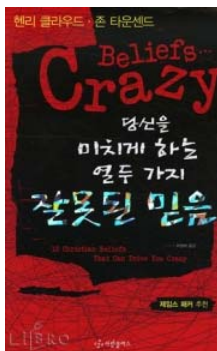
지은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하늘의 언어', 방언의 중요성을 새로이 강조하는데, 2007년 초부터 방언을 통해 자신은 물론 주변 인물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연이어 겪으면서, 그동안 출간 추구해온 부흥의 문제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새로이 생각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지은이는 방언에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으며,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 시대의 기독교인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흥의 코드라고 말하고 있다.

추천도서 II

당신을 미치게 하는 열두 가지 잘못된 믿음

저자: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책 소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성숙과 감성적 성숙을 방해하고 심신의 장애까지 가져올 수도 있게 만드는 열두 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와 더불어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낸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임스 패거의 말처럼 독자들을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성숙하게 하는 풍성한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혼란스러운 주장들이 상당히 많다. 아니 그러한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신장애를 일으키고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해 뒷받침하기 때문이며, 그 잘못된 믿음 각각에는 진리가 부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헨리 클라우드 박사와 존 타운센드 박사는 쓰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잘못된 믿음 열두 가지를 뽑아 사례와 더불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리를 밝혀낸 이 책의 일독은 독자들이 영적성장을 진일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구브로의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넘어간다. 이후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데, 그 길은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실로 험난한 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가며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짚어본다.

글 - 오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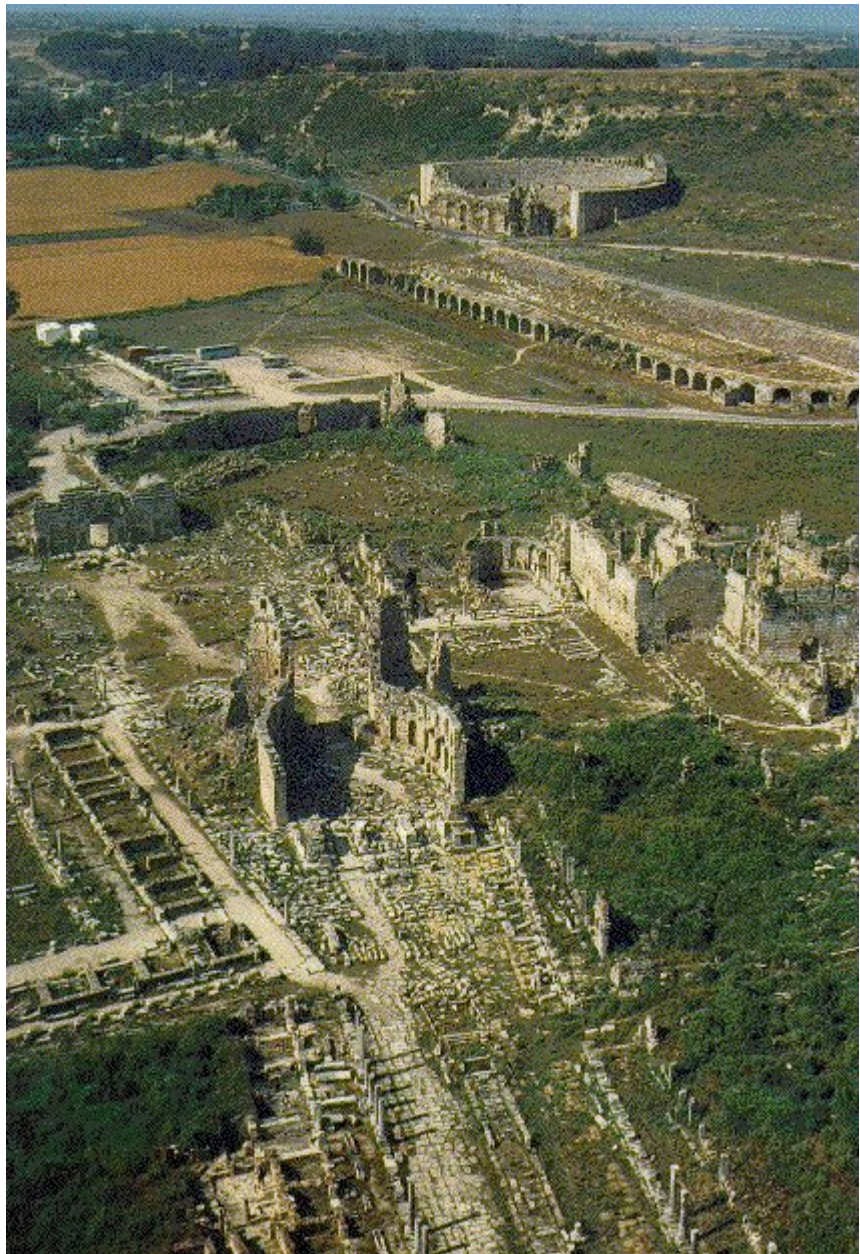
“바울과 밋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행 13:13-14)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 길을 떠났던 이들에게 있어서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갖는 의미는 사뭇 컸으리라. 바울과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떠났다. 그런데 누가는 구브로를 떠나 북쪽으로 길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사실 이들이 안디옥에서 떠났을 때부터 일정한 행선지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이들의 선교여행이 구브로에 한정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런데 스티브 미첼(Stephene Mitchell)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돌에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사도 바울의 다음 선교지 결정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 있다. 돌에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비시디아 안디옥 및 밤빌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른 밤빌리아 지방들은 바울이 구브로를 떠난 후 1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도시들과 놀랍게 일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스티브 미첼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브로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향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방인을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준비해주셨던 것만큼 그의 가족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상상력에 불

과하다. 어쩌면 구브로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이 바로 밤빌리아였기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비록 누가가 자세한 배경을 밝히고 있지



고고학이 발견한 버가의 전체적인 모습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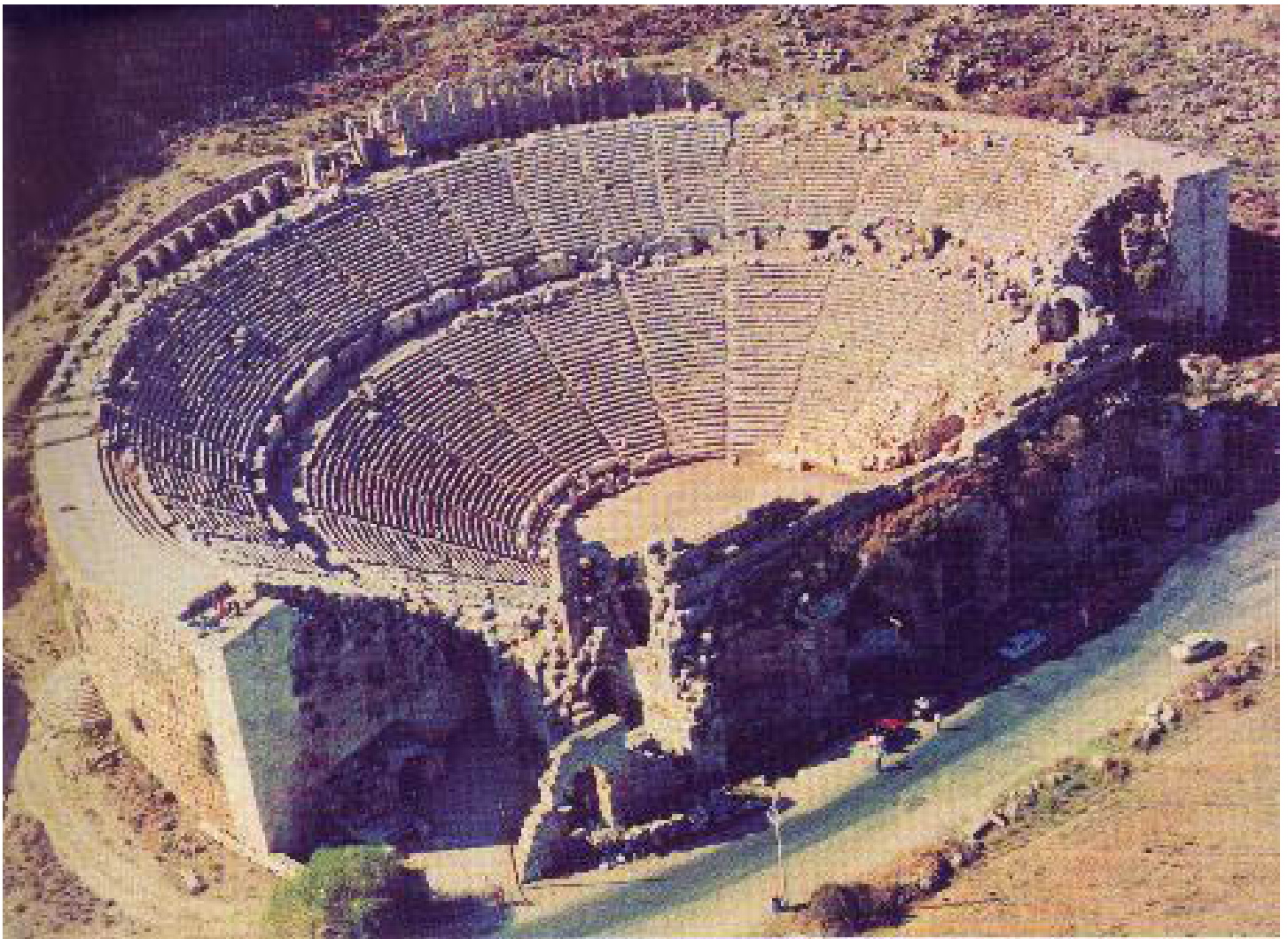
바울이 밤빌리아로 건너갈 당시, 필로(Philo)에 따르면, 밤빌리아 지역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밤빌리아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80마일, 그리고 북쪽으로는 비디시아 산맥까지 30마일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해안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로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었다. 지중해로부터 약 7마일 정도 북쪽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돌아가는 길에 다시 버가를 지나간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시리아)에 이르니” (행 14:24-26)

누가는 여기서 ‘앗달리아’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다. 앗달리아는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인데, 1세기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에 따르면 “앗달리에서부터 세스트루스(Cestrus) 강을 따라 60 스타디아 (약 11-12 km) 올라가면 버가에 이른다”고 한다. 즉, 앗달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는 (강을 통한) 뱃길이 있었고, 버가에는 작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했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은 구브로의 바보에서



버가에 있는 로마 원형극장

배를 타고 떠나 지중해를 건너 앗달리아에 이르고, 거기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강을 따라 버가에 이를 수가 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역 중 고고학적인 발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버가이다. BC 3세기경에 세워진 성벽과 타워의 일부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신전의 자리, 상점 터 등과 같은 생활 공간들도 드러났다. 또한 체육관과 1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들 건물에 새겨진 “황제 클라우스에게 바친다”는 글로 보아 바울이 버가를 지나면서 이 원형극장을 보았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마도 남쪽 성벽의 문을 통해 버가로 들어와 북쪽으로 뻗어있는 길을 따라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떠나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행 12:12) 돌아갔다고 누가는 전한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역시 밝히고 있지 않다. 흥미로운 한 가지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다는 점이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전도여행을 같이 하지 않고 돌아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보다는 예루살렘을 택했던 것은 아닐까?

몇몇 성경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이방인 전도보다는 같은 유대인을 향한 전도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본다. 구브로를 향해 갈 때만 해도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있었고,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을 향한 발걸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전도 여행의 주도권도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역으로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실 마가가 유대인을 향해 사역했던 베드로와 함께 했던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다. 2세기의 파피아스(Papias)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었으

며, (베드로부터) 듣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였다(골, 마가복음)”고 밝혔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가는 사도 바울의 일행과 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훗날 2차 전도여행 때 이 일은 바울에서 있어서 바나바와 첨예한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라가로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행 15:3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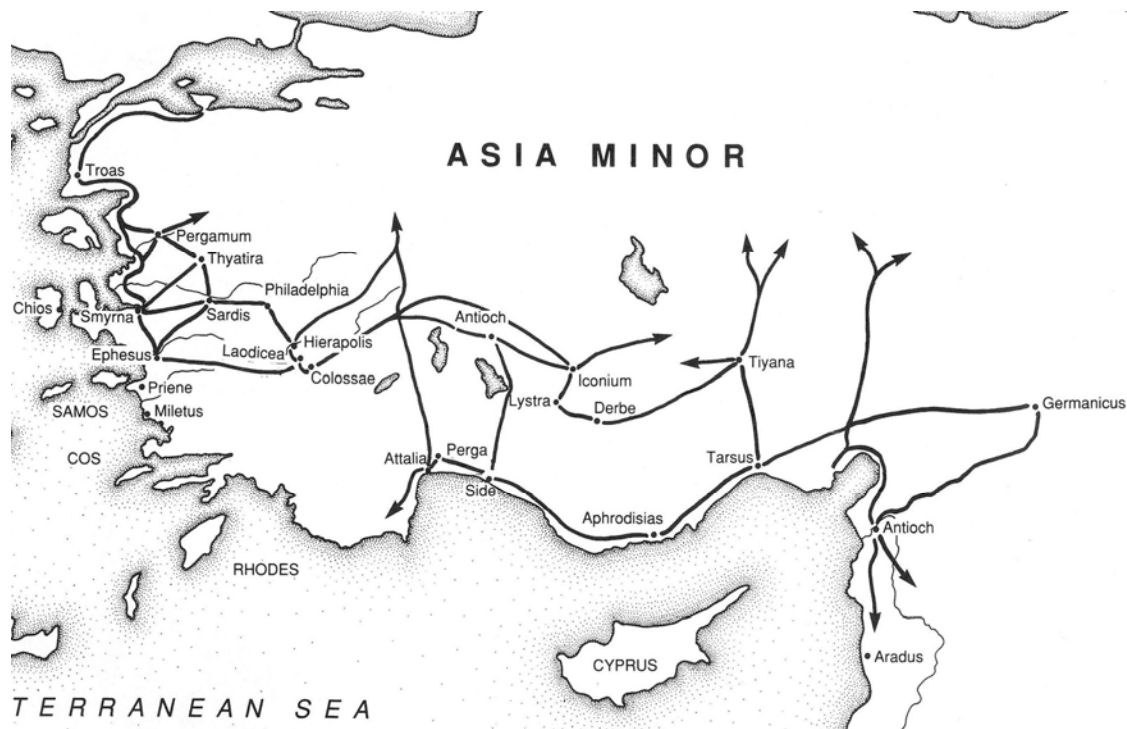
사도 바울 일행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간에 험한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산들은 ‘강도의 위험’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일찍이 황제 어거스투스(BC 27-AD14)도 이 곳 산들에 나타나는 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수비대 초소를 세웠을 만큼 강도의 위험이 컸던 곳이다. 훗날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강도에 대한 기록도 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고후 11:26) 사도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안고 떠났을 것이다.

어떠한 길을 따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로마 도로로 본다면 버가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다소 쉬운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에 비해 짧은 길이 있다. 존 맥레이(John McRay)가 주장하는 이 길

은 버가에서 오른쪽으로 향하여 시드(Side)를 지나 북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을 가파르게 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빠르다고 표현은 하지만 이 길도 통과하는데만 일주일의 꼬박 걸리는 길이다.

전혀 생소한 길에 강도의 위험까지 있는 길을 일주일에 걸쳐 꼬박 걸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는 산을 가파르게 넘어야만 한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했을까? 그냥 비교적 편한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실제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버가에 들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길을 재촉하며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급히 길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렇게 소중했다. 그토록 힘든 여정 끝에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안고 들어갔다. 📖



소아시아를 통과했던 로마의 길

아름답고 귀한 폰수같은 남편

정이실

결혼하기 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열 가지 정도를 적어놓고 기도했었던 것 같다.

남편과 나는 결혼 전, 5년 동안 가끔씩 보았던 친구 (솔직히 말하면, 누나와 동생) 사이였었다. 긴 애기를 짧게 하자면,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남자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위낙 나의 삶도 나를 바꿨기 때문이었고, 처음부터 그는 아는 동생의 친구로 만나 나에게도 동생 이상은 아니었었다.

사실 난 성령과 방언을 받고 드디어 나도 하나님의 쏟아지는 축복으로 세상에서 더 잘되어 물질 선교를 하리라는 희망으로 기도를 몇 년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말씀에 더 오래 보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다녔어도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의 삶은 기가 막힐 정도로 한심해 보이기만 했다.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세상의 꿈도, 내 인생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즈음 남편은 나에게 자신을 남자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했다.

그의 물음에 나의 첫 반응, “쓸데없는 말 하려면 다시는 안 본다”였다. 그러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 후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한 지붕 식구로 살고 있다. 12년 이상을 살며 생각해보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아! 이 꺾이지 않는 나의 자존심!!!!)

처음에 기도제목 10가지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 사실 남편은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준다. 예를 들어 내 얼굴에 뭐가 나면 나는 쥐어짜고 흉터가 생겨도 태평이다. 그러나 남편은 화를 낸다. 그것도 심하게... 예쁜 와이프 얼굴에 (지극히 주관적인 남편의 생각이니 화 내지 마세요) 흉터가 남을까봐. 하나 더, 식사 후에 이쑤시개를 못 쓰게 한다. 사실 난 잘 쓰지 않지만 식당에 가면 식탁 위에 놓인 걸 자신은 쓰지만 나만큼은 안 된다. 이유



정이실 (왼), 정형진 (오)

는 내 이가 벌어져 미워진나? 뭐 하여간 이런 남편이니 친절엄마가 오히려 질투를 하신다. “넌 좋겠다, 폰수 같은 남편 만나 그렇게 위해주니” 이러시면서 말이다.

꼼꼼한 남편, 덜렁거리는 나. 성격 급한 그, 지극히 느긋한 나. 먼저 준비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는 그, 제 시간에만 가면 되는 나. 뜻대로 안되면 화부터 나는 남자와 뭐가 그리 화가 나냐고 실수하고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여자가 같이 살자니 우리라고 티격태격 없겠냐 마는 그래도 우리는 늘 나를 한 쌍의 어울리는 그런 사이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언제나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한 가지 이루어 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이었다. 언제쯤이나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남편이 될까 하는 것이었다. 늘 아내의 기

도와 믿음 뒤로 숨어버리려는 남편은 나에게 답답함과 때로는 하나님께 사기 당한 기분까지 들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했는데 별 변화가 안 보였으니 말이다.

모태신앙인 남편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3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캘리포니아 누나 집에서 살던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의 문제와 앞날의 막막함으로 하는 수 없이 해군을 지원했다.

LA에서 만나 결혼하고, 일본과 하와이를 거쳐 이곳 메릴랜드로 온지가 3년 반이 되었다. 하와이에서 아버지 학교를, 그리고 이곳에서 몇 년 전 LTD를 받으며 남편은 조금씩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변화를 보였다. 어느 날 찬양시간에 손을 들며 찬양하는 모습을 본 나는 충격 그 자체였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다. 항상 나의 사역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바나바와 같이 섬기며 협력해주는 남편이지만 나는 정말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조금은 소극적이고 말없던 남편은 오이코스를 참여하면서 조금씩 이상해져(?) 갔다. 이것은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만 아는 얘기지만 가끔씩 남편이 불쑥 하는 한마디는 우리들을 너무도 웃겼고 같이 살던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이 남자일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아마 전 오이코스 목사였던 김 석재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를 이상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김석재 집사님 부부의 수고와 섬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금식 수양회도 이전처럼 나 혼자 가게 되겠지 생각하다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그냥 가족이 가는 길로 등록해 버렸는데 다행히 “같이 가자고?”로 지나가는 남편이 고마웠다. 그런데 배고픈 걸 못 참는 남편에게 금식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농담으로 “한 끼만 굶고 아이들 먹을 때 먹어도 돼”했다. 아이들 말길 데도 생각나지 않아 다 같이 올라간 수양회는 첫날부터 너무 좋았다. 찬양과,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늘 씨름했던 내 사명의 방향이 더 확실해지는 시간들이었다.

수양회에 가기 전부터 나는 남편이 방언을 받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간증 시간에 금요일 밤에 김 명중 장로님과 기도한 팀들은 모두 방언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고 약이 올랐


다. 아니 왜 몰랐지? 애기 좀 해 주지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다. 기도 때 마다 남편을 보면 분명 준비되어 보이는데 그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야속했다. 수양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모두들 집으로 떠나가기 시작해도 내 마음은 아직 떠날 수가 없었다. 장로님 부부께 남아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싫다는 내색도 없이 남아서 기도해 주셨다.

모두들 돌아가고 딸 둘은 넓은 공간에서 신나서 뛰어 노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였을까? 방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남편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남편은 앞으로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고 나중엔 서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남편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 것 같았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분은 남편이 말로 아버지께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평소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남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쌓인 것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위로하셨다. 특별히 남편의 수동적인 부분이 변화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면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열리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

오랜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방언기도 받은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쁘고 가볍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기도로 목이 쉬고 눈은 퉁퉁 부었지만)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다. 이 사람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더 감격스러웠다. 다음날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 남편이 넥타이를 맬 때 아마 결혼하고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정말 잘 생기고 멋진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으신 남자 분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금식 수양회를 위해 수고하시며 기도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음에는 방언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노아의 홍수와 바다의 염분

바닷물은 민물과 다르다. 일단 바닷물은 맛이 짜다. 소금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소금의 양은 늘 일정한 것일까? 아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살펴보면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바다의 나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글 - 오장석

성경은 노아의 홍수 때, 땅에 서식하며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과 새들만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물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방주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규모였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물과 바닷물이 온통 뒤섞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건디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물고기가 건디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양에 대한 문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바닷물은 민물에 비해 그 맛이 짜다. 바닷물에는 소금의 양이 민물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물고기들은 소금의 양에 민감하다. 즉, 민물에 사는 어떤 물고기들은 짠 바닷물에서 살지 못하며, 반대로 바닷물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은 민물에서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민물과 바닷물이 온통 뒤섞여버린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어떻게 건딜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바닷물의 소금이 늘 일정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염(즉, 소금)은 화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비금속과 결합된 금속 화합물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Sodium chloride, NaCl)은 금속인 나트륨(Na)이 비금속인 염소(chloride, Cl)와 결합하여 생성된 것이다. 염은 전기적으로 극성을 띠는 원자(이온이라고 불리는)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끌어당겨 단단한 결정을 형성한다. 즉, 소금을 녹이면 양성인 나트륨(Na^+)과 음성인 염소(Cl^-) 이온으로 분해된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경로로 바다에 유입되는 것일까? 소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강물을 통해서다. 육지의 물은 땅에 있는 암석에서 나트륨을 녹여 바다로 이동시킨다. 일부는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기도 한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아래 해저의 분

출구나 퇴적물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발생된다. 또한, 화산 먼지도 나트륨 방출에 일부 기여를 한다. 현재 바닷물 1kg에는 약 10.8g의 나트륨 이온이 녹아 있다.

물론 바다에 녹아 있는 소금이 다시 육지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자동차에 생기는 녹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생겨난 작은 물방울이 증발되면서 미세한 소금 결정을 형성하는 염분 스프레이(salt spray) 현상 때문이다. 이것이 바다로부터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가장 주된 과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이온 교환 현상이다. 즉, 해저의 퇴적물이 나트륨을 흡착하는 대신 칼슘과 같은 다른 이온을 방출해낸다. 따라서 바닷물 속의 나트륨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바다로 들어오는 소금의 양과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여 바다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혜성의 발견으로 유명한 ‘에드몬드 헬리’에 의해 지난 1715년에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899년, 지질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존 줄리(John Joly)’가 바다 소금의 양을 기반으로 바다의 나이가 최대 8천-9천만년이라고 추정하였다. 비록 100년 전에 측정되어진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측정치는 상당히 정확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존 줄리가 주장하는 8천-9천만년의 바다 나이를 받아들였으나, 지구의 나이가 점점 더 오래되어지면서 그의 ‘바다 나이’는 결국 낮게 측정되어졌다고 여겨졌다.

지난 1990년, 두 명의 창조과학자, 지질학자인 스티븐 오스틴과 물리학자인 러셀 험프리가 바다 내 나트륨 이온의 양과 유출입 속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대략 4억 5700만 톤의 나트륨이 매년 바다로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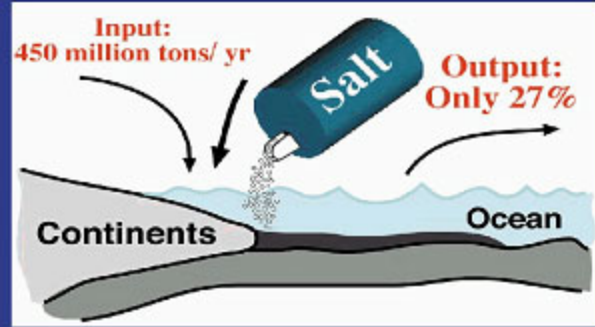
오는 반면, 바다에서 유출되는 나트륨의 양은 유입되는 양의 27%인 1억 2300만 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반으로 바다의 나이를 계산하면, 최대 3천 200만 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에 비해 더 관대하게 가정을 잡는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나트륨의 최소 유입 속도는 매년 3억 5600만 톤, 최대 유출 속도는 매년 2억 600만 톤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의 가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산하여도, 바다의 나이는 최대 6천 200만년을 넘을 수 없다. 즉, 6천 200만년이 넘으면 바다는 온통 소금으로 뒤덮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바다의 나이는 적어도 30억 년은 되어야 한다!

진화론자들의 가정을 최대한 고려하여도 바다의 나이가 30억이 아닌, 6천 200만년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30억년이 나오기 위해서는 소금이 훨씬 더 느린 속도로 바다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바다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때 지질학자들은 염을 함유한 암석들이 지층 속에 묻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빠진 소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 바다는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즉, 소금이 들어오는 대로 100% 다시 바다에서 빠져나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고 답한다. 그들은 30억년을 수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30억년의 나이에 맞추어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낼 것이다.

그에 비해,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보여준다. 기록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나이를 전부 합하면 짧게는 6천년, 길어야 만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여전히 소금의 양을 바탕으로 계산해 낸 바다의 나이, 3천 200만년 또는 6천 200만년에 비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천 200만년은 바다의 실제 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다의 나이가 6천 200만년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최대의 나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계산에 사용되어졌던 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나트륨의 유입되는 속도와 유출되는 속도가 과거나 현재나 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정이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동일가정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전 지


Salt fills the sea too fast



Upper limit: 62 million years

구가 물에 잠겼던 격변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온 땅이 부수어지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기며 대륙이 나뉘는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물에 녹아나는 나트륨의 양이 얼마나 많았을까? 물이 빠져나가 바다를 이룰 때 늘어난 나트륨의 양은 또한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시간이 아닌, 사건으로 눈을 돌리면 의외로 문제의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1996년 과학논문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소금의 유입 속도는 오스틴과 험프리의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오스틴과 험프리가 자료를 분석, 연구할 당시 해저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양은 전체 지표수에 비해 0.01-10%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해저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양이 강을 통한 유입량의 4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바다의 최대 가능한 나이가 더욱 줄어들게 한다. 30억년에 맞추려면 소금의 유입 속도를 더 낮추어야 하는 진화론자들에게는 더욱 괴로운 자료인 셈이다.

또 다른 중요한 가정으로, 최초의 바다에는 염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초의 바다에 소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다면, 창조 때에 염분이 있는 바다를 만드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금의 농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금이 있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로 많은 양의 나트륨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해저지하수 유출이 예상보다 크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금의 양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그로 인한 물고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간다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우간다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07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눈과 추위, 김장 준비와 두툼한 파커, 털신과 목도리... 이들과 상관없이 지내온 세월이 한참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는 더위와 가뭄.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캐를송이 너무나 생경한 적도의 땅, 우간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선교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 동역자들에게 적도의 뜨거운 성탄인사를 드립니다.

글 - 최승암, 박주리 선교사

우간다 소식: 영연방 회의(CHOGM)개최, 에볼라(Ebola) 전염병 비상

2007년 11월, 전 세계 53개 나라의 국가 원수와 국가 원수급 귀빈을 맞이한 우간다는 그야말로 개국 이래 제일 많은 손님을 모신 행사였습니다. 수 년 전부터 이를 위해 호텔 신축, 도로 포장, 도시 미관 정비로 분주했습니다. 좁은 도로에 밀려드는 귀빈 차량과 보도진으로 행사가 치러진 주간에는 외출을 포기한 채, 전체 국민들이 숨을 죽인 기간이었지요. 온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영국 여왕도 왔으니 가히 그 흥분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행사들도 도로가 정비되고 세계의 흐름에 눈을 뜨길 기대해보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평상으로 돌아왔지만 행사의 후유증이 심하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행사가 마칠 때를 기다렸다는 우간다 서부 지역을 강타한 역병, 에볼라 괴질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발병 이래 7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 전염병은 피부 접촉과 호흡기로 감염되며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적절한 치료약도 없어서 진료에

가담했던 의사를 비롯해 30명이 사망하고 350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년을 극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혔던 내전이 가라앉자 얼마 전에는 홍수 이번에는 전염병 등으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군나 우간다 서부 지역에 인접한 나라인 르완다의 국경을 폐쇄하는 바람에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 돌아간 많은 RTC의 르완다 학생들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혁신학교 (RTC: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및 선교부 (MEN: Mission to Every Nation) 소식

신학교와 선교부도 일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장이신 아칠라 목사님에 이어 선교사 박영웅 목사가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지인 운영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남학생 기숙사가 완공되어 입주를 했고, 옛 남학생 기숙사는 내부 수리를 거쳐 여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교부에는 귀한 선교사님을 영입하는 행사를 최근 가졌습니다. 유형열, 이민자 선교사 부부입니다. 두 분은 그동안 국제기아대책 기구(FHI) 소속으로 지난 1992년부터 우간다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해오셨습니다. 우간다 동부의 Kumi라는 지역에서 대학을 설립해 최근 정부의 인가를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역을 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 충신을 졸업, 최근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11월, 저희 MEN 선교부에 가입하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 선교부가 더욱 힘과 활력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욱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접하는 계기가 이 코스를 통해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소식

예찬(고2), 예원(고1)은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 없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에 아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예원이는 학교에서 찬양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찬이는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자주 못하는 아쉬움을 접으면서 장래 컴퓨터 공학도로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박주리 선교사는 신학교 강의를 비롯해 신학교 이사로서, 선교부의 문서 사역자로서, 선교부의 게스트 하우스 관리자로서 작은 몸을 쪼개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의 주 공격수로서 많은 남성 수비수를 울리기도 하지요. 한편, 저는 선교부의 대표와 더불어 우간다 한선협(한국 선교사 협의회)의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우간다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지방 목회자 훈련(CLI: Christian Leadership Institute)

지방의 목회자를 매주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훈련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과 간증을 누리는 유익한 사역입니다. 2007년 1월 시작되어, 2학기(매학기 12주 코스)를 마쳤습니다. 신학교에 올 형편이 안 되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선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3명의 목회자가 등록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상황에서 목회의 열정만 갖고 시작된 그들의 목회현장.. 그동안 성경 해석과 설교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제대로 된 교재와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성경의 진리는 많은 간증과 도전이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영어가 서툴러 강의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 열정과 순수함만큼은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약은 창세기에서 에스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공부를 마쳤고 남은 1년의 코스를 통해 성경 66권을 모두 읽고 또 연구하여 우간다 지역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



나의 유일하고 진실한 친구

Jonathan Lee

제가 하는 간증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고 제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시간에 뛰어 돌아다니고, 잘난 척 하기위해 성경목표를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예의바른지 자랑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거기다 나는 학교에서 매 학기 스트레이트 A를 받을 정도로 공부도 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꽤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6학년이 되기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근사한 중등부로 올라가기 전의 여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여름에 어떡하다보니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밤,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학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구원'이니 '친밀함'이니 하는 단어들을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교시간에는 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친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뒤에 남겨지는 것이 싫어서 저도 급히 그들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고, 제가 하고 있는 결정의 중대성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수련회 장소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제가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어떤 부분도 크게 바뀌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 삶의 방식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년 말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그해 봄에 오션시티 컨퍼런스를



I guess my testimony isn't all that different from other people's in our church. I was raised by a Christian family and have been going to church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Back at my old church, the Korean American Church of Philippi, I remember jumping around during children's worship and memorizing all the books of the Bible just to show off. My Sunday school teachers loved me, I had a lot of friends, and my parents loved bragging to everyone about how handsome and well-behaved I was. On top of that, I did very well in school, getting straight A's nearly every quarter. Overall, I was a pretty good kid.

I officially accepted Jesus into my life the summer before sixth grade, wh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ved up into the much cooler middle school group. I just so happened to be on my very first church retreat. On the last night of the retreat, the guest pastor made an altar call, asking the students who wanted to receive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I had no idea what he was talking about, as he spouted words like "salvation" and "intimacy." I was also probably sleeping during the sermon, so I remained in my seat. Once I saw all of my friends go up, however, I hastily followed suit, not wanting to be left behind. I prayed the Sinner's Prayer that night, but did not in the slightest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I was making.

Because of that, I left that retreat feeling more or less the same. I returned home and continued to live as I always had. I didn't feel the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고, 한 유명한 크리스천 그룹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떠있었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즉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까지의 시간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밖에서 우리를 태우고 갈 교회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함께 교회에서 자란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는 한마디로 자신들은 더 이상 나와 같이 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어울릴 정도로 멋있지가 않고, 자신들과 어울리기 위해 너무 노력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도 충격을 받고, 상심을 받아서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울면서 “왜 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거야?”라며 계속해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지낸 몇 번의 주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거북했습니다. 예배시간에 저의 옛날 친구들은 한 쪽에 앉아 있었고, 저는 다른 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의 가족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몇 년간은 교회를 들쭉날쭉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가족의 친구들과 함께 새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 곳 역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던 빌딩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라고 해야 저와 저의 형제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아이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8학년이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배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숨어들어서 점심시간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님으로써 일요일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학년이 되기 전 여름, 엄마가 저를 헬로쉽교회의 여름 수양회에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엄마가 사전에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need to make any major changes in any area of my life; I was content with the way things were already going. It was later that school year when God would have to show me the mistake I was making with this mindset.

My youth pastor decided to take the students to a youth conference in Ocean City that spring. There would be some ten thousand people and a famous Christian music group leading worship, and we were very excited. We were all enjoying a wonderfully blessing time, that is, until the very last day of the conference. After the last session, we were all waiting outside for the church vans to come pick us up. As I came out the door, my "friends," the group of boys I had grown up in the church with, approached me and basically told me that they had made a collective decision not to hang out with me anymore. The consensus was that I wasn't cool enough and tried too hard to fit in with them.

I realize this is a rather silly story, but looking back, I remember being so shocked and heartbroken. I went home after that conference crying to my mother, asking over and over again "Why don't they like me?" The next few Sundays at church became painfully awkward, as my former friends sat on one side during service while I would sit on the other, alone.


My family eventually made the decision to leave that church, so for the next couple years, my church attendance became very up and down. We went to GMC for less than a year, and then left there as well, to start a new church with some family friends. This new church was tiny, and was held in a part of my dad's office building at the time. The youth group basically consisted of me, my siblings, and a few other younger kids. I was in 8th grade at the time, and I hated going to church. The Sunday service was conducted by the main pastor, who couldn't speak English well and therefore couldn't convey anything particularly meaningful to us children. After the service, I would just hide away in my dad's office and play on the computer until it was lunch time. I felt like I was wasting my Sundays by going to this church.

The summer before my 9th grade year, my mom signed me up for one of NCFC's summer retreats. I was definitely mad about it, since I barely knew anyone at the church and my mom

그곳에서 모두가, 특히 저같이 새로운 학생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정말로 놀랐습니다. 게임, 설교, 예배, 모든 것이 재미있었고 확실히 저의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수련회의 두 번째 밤은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각 학생에게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등에 손들이 올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위해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쭐대며 판단을 했던 이 사람들이 저를 위해 축복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나단, 너는 더 이상 혼자 일 필요가 없다. 나는 네가 외롭고 슬픈 시간들을 지내온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저를 둘러싼 사람들 안에서 저의 자아를 찾기 위해, 친구들에게 받는 인정으로 제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된 하나님을 찾아야하는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유일하고 진실한 친구인 그분께 다가와서 포옹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수양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로 둘러싸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놀라운 느낌입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이 제 평생동안 저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 분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hadn't told me about it beforehand. I still had this mindset that people who went to church were fake and unfriendly. I didn't have a choice in the matter, however, so I went to the retreat. I was actually surprised at how friendly everyone was, especially to me, the new kid. The games, sermons, worship, and everything else were a lot of fun and definitely opened me up a bit.

The second night of the retreat, I remember, was the most memorable. The guest speaker asked each of the students to get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students from their grade and pray together. I walked into the circle, but since I still wasn't that familiar with everyone, I kept silent and mostly prayed quietly to myself.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ed. I felt hands on my back, and people praying out loud over me. I didn't look to see who it was, but I was stunned. These people, who I had come in judging pretentiously, were speaking words of blessing over me, and they didn't even know me! In that moment, I felt like God was telling me "Jonathan, you don't have to be alone anymore. I know you went through these times of loneliness and sadness, but I am always here for you." I realized that for the longest time, I had been spending my time trying to find my identity in the people around me, trying to fill that gap in my heart with the approval of my friends. My mistake was trying to please man, when I should have been seeking after God. He was waiting for me all this time, to reach out and embrace Him as my one true friend, one who never fails.

That retreat, I recommitted my life to God, and since then, He has been so faithful. He has blessed me by surrounding me with many brothers and sisters who help keep me accountable and accept me for who I am, not who they would like me to be. I feel at home every time I come to church, and it is such a wonderful feeling. I know now that my God is a loving God who has provided and cared for me all my life, and that I had just been ignorant to it. I live my life to serve Him alone, in whatever areas He desires for me to go in. I know He has something awesome planned for me in my life, and I can't wait to follow Him and see what it is! 

영원한 나의 사랑

Julie Jung

부모님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 삼촌은 언니, 동생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 예배가 끝나면 한글학교를 가고, 크리스마스 연극에 참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교회를 편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삼촌은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내가 중학생 때, 드문드문 다니던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은 언니 때문이었다. 다시 돌아갔을 때도 교회는 여전히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도 한 명 뿐이었다. 교회의 어느 곳에도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그 날의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유형의 크리스천중 하나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싫어한 것 같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항상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었고, 나는 그 아이들이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친구로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에 분개해했다. 내 자신이 끼지 않기로 선택을 했음에도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닌 가십을 나누는 사교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싫었다.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나 또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학교에 가서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굽주려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로 인해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 작은 그룹 모임과 영어대학부인 Impact 모임을 통해 나는 천천히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그룹이라는 곳에 끼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임에서 배웠다. 사람에 대한 신뢰



I grew up going to church with my uncle and two sisters because my parents did not attend regularly. I remember going to Korean school after Sunday service and participating in the Christmas plays however I never felt like the church was my home. My uncle moved back to Korea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subsequently I stopped attending church. I started attending sporadically the same church during middle school because of my older sister. It never really felt like home when I went back and I had only one good friend that I hung out with. I didn't feel like I ever fit in anywhere and so I tried to be invisible.


I was one of those Christians that liked to sneak into service, listen to the message for that day, and go home after service was done. I think I really disliked my church experience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because of the people that attended my church. There was always so much drama between the younger kids and I felt like they only came to socialize. I resented them for not including me as a friend, even though I chose to exclude myself. Still I disliked how they used the church as a mingling place to exchange gossip instead of a place of worship and of God.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I was the quintessential Christian. I didn't give them a chance and I didn't understand God's love for me and the world.

It wasn't until college that I met other people like me and I was truly hungry for His word. I met some awesome people that showed me what it means to love each other and to love God. These people became my family and they restored my

가 부족했던 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배웠다. 살면서 때때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겪지만, 항상 한 가지만은 빠르게 붙잡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대학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면서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나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올바른 곳에 내가 있다고 믿고 있고, 이것은 단지 긴 여행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친구 사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분명 이겨내지 못했을 장애물들을 준비하셨다. 작년에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삼촌은 자살을 하셨다.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나 자신은 하나님께 화가 난다거나,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그저 나에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했을 뿐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비극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를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내게 있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인가’였다. (어떤 사물이나 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나, 나는 내 믿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어떤 명백한 경험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슬쩍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삼촌의 죽음을 알고 난 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은 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한 후에, 나는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알았다. 나에게 “그런 일을 겪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게 할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매일의 삶이 있다. 나의 끊임없는 여행길에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써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and love of Him. Through small group and impact meetings, I was slowly being included into a group, something I desperately longed for. I learned about God and His love from them. I lacked so much faith in people but through them I relearned what it meant to love others, like how God loved us. I have my ups and downs every now and then but one thing always holds fast, and it's God, it's Jesus, it's the Holy Spirit.

Since college, I've been growing in His word and trying to achieve greater levels of spirituality. It's been difficult at times but I believe I'm on the right track of where my heart should be and I have faith that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a long journey. God's been challenging me to step up in terms of my role in church and with my peers. He has placed obstacles in my path that I would surely not have gotten through without His love. Last year, my uncle passed away unexpectedly. In all honesty, he committed suicide. It was devastating to me and my family. I think in many cases of death, most people question God and His mercy. I was truly surprised to find myself not angry or upset with Him, but I was grateful that I had Him to hold onto. I didn't doubt his goodness or His mercy, but I thanked Him for my family and prayed that this would bring us together in this time of tragedy. And I never really doubted how much I loved God, but to me, it was the question of how long I would love Him (through my serious lack of capacities to love anything or anyone besides my family).

I've always believed in God and accepted Him as my savior, but I always wanted Him to give me an experience, something tangible that I could attest my faith to. He never gave me a glimpse of that, however in the moments after I found out about my uncles death, after I cried out to him in pain and anguish, after I thanked Him for being my God; it was then that I knew I would love Him forever, without an iota of doubt. I might not have a million crazy stories like other people, ones that make you say, I can't believe you went through that, however, I have daily living. I have my steady journey, and hopefully through patience and His grace, I can achieve more than I ever thought possible. 

Nothing is the same

David Forkkio

Hi I'm David Forkkio. I am getting baptized today. When I was younger my parents told me about God but I never really believed. I thought of myself as a Christian but I wasn't saved. As I grew older I pretty much forgot about God. I was only concerned about myself and having fun. If someone asked me I would say I was a Christian but I wasn't really. I never knew what it really meant to be a Christian. Then my life changed when I went to church. I had been to church before but never for a long time. We always stopped going eventually. But this time it was different. We didn't stop going. At first it didn't really have an affect on me. But when I went to my first retreat everything changed. God was finally real to me. I wasn't the same and I was ready to live a life for God. Now I am saved and nothing is the same. Everything from, my friends to, my actions, and how I view life in general has changed. I no longer look to others for approval, but I find my identity in God. Although I have come a long way my journey is not over I still struggle with sin but it isn't the same because I know I am forgiven for my sins. In the future I would just love to live a life of passion for God and I pray that I will follow his calling in life. So that's my testimony. Thank you. 🌈



Susan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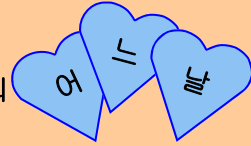


영어회중 세례 단체 사진

교회행사

- ◆ 3월 5일(수) 헬로쉽 시니어센터 개강
- ◆ 3월 7일(금) 중고등부 연합부흥회 (장소: MD 캠퍼스)
- ◆ 3월 8일(토) 정트리오 콘서트 (장소: MD 캠퍼스)
- ◆ 3월 9일(일) - 12일(수) 29기 LPTD(남성)
- ◆ 3월 10일(월) - 21일(금) 사순절 특별새벽부흥회 (각 캠퍼스 별로)
- ◆ 3월 21일(금) - 22일 (토) 영어회중, 중고등부 금식수양회 (포토맥 캠프)
- ◆ 3월 22일(토) 사순절 합동(MD/VA)특별새벽부흥회 (장소: MD 캠퍼스)

헬로쉽의



114 (이정국 집사) 오이코스 모임이 있던 날, 오이코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 뒤 어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모두를 내려갔는데 이 집사의 남편인 Mr. David과 장희석 형제의 아들 Elliott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Elliott: 다들 내려가는데 왜 아버지씨는 안 가요?

Mr. David: 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못 가는 거야.

Elliott: 저도 그래요, 하는 말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참고로, Elliott 4세, Mr. David 68세)



남남, 웡~ 웡~ 죽겠지! 약이 올라 죽겠지!



세례의 참맛을 아십니까?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이창환, 안선희

*인쇄: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